

구민이 주인... 민선9기 '더 큰 중구'로 발돋움

匾, 내달 1일 출범식 개최 총 5대 분야 청사진 제시 소망 영상 상영·축하공연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민선9기 출범 첫날 오는 7월1일 총무야트센터 대극장에서 '함께 여는 민선9기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 누구나

나 함께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100여명을 초청했으며, 지역 내 기관장과 직능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주민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영상으로 막을 올린다. 기존 취임식의 경직된 내빈 소개 대신 축하 영상을 마련해 주민 모두를 동등한 주인공으로 예우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어 소리꾼 재담과 뱃노래 합주 축하공연이 무대를 꾸민다.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어린이, 학부모,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민선9기에 바라는 중구의 미래와 희망을 전하며, 앞으로 4년간 중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민선8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김길성 구청장은

민선9기 '더 큰 중구'로의 도약을 주민에게 약속한다. ▲미래를 그려는 중구 ▲청년이 꿈꾸는 중구 ▲교육이 든든한 중구 ▲노후가 편안한 중구 ▲품격이 가득한 중구 등 5대 분야의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와 구청장이 함께하는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주민들의 바람과 민선9기의 약속이 하나의 미래 비전

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4년간 주민과 함께 중구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민선9기 출범식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중구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중구의 주인인 구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송파구, 안전 최우선 도시 위상 입증 공무원 재해 예방 '우수기관'에 뽑혀

구청 내 산업재해율 1%p 감소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공급에서 공무원 관련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1등 표창)을 수상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유일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과 ▲안전 중심의 안전 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을 통한 '송파구형 재해예방 모델'을 수립·운영한 것이 이번 수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그 결과, 구청내 산업재해율을 2024년 1.42%에서 2025년 0.42%로 1년 만에 무려 1%를 감소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직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효용을 보였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기관표창을 받으며,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최고 수준인 우수 지자체임을 일깨워주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11월까지 8개 인문학 프로그램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 문화재단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강화를 진행한다. 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8000만원의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독산·기산·금내래·시흥도서관 등 지역내 4개 구립도서관에서 5개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3개 '지혜와 삶' 프로그램 등 총 8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는 금천구립독산도서관이 해당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구는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아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연속지원 기관'으로 지정, 미리 1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공모를 통해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문학·철학 중심의 인문학을 넘어 영화, 음악, 미술관 견학, 인공지능(AI) 예술, 한중일 고전번역, 음악극, 구형책 등으로 주제를 넓혀 각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천구립독산도서관에서는 영화와 음악을 매개로 도서관에 사외와 인간의 감각을 살리는 길 위의 인문학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일부터 9월10일까지 영화 속 장면과 서사를 통해 역사와 음악, 철학을 함께 알아보는 프로그램 '시네마 그라미'와 철학·영화로 엮은 역사, 음악 그리고 책의 '이정연'이 진행된다. 오는 7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진행되는 '시네마, 다시 듣는 사랑의 음악'은 시흥에서 확산되는 시대에 인간의 연수와 현성성이 지닌 의미를 되짚어본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공동주택 체육대회
성북구가 지난 21일 '제1회 성북구 공동주택 함께가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13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250여명의 주민 참여해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이소로 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광진구, 9월까지 이동노동자 쉼터서 생수 나눔... 무료 노동상담도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무료 생수 나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야외 활동이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거나 일정한 휴게공간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이해 구는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더 안전한 근무할 수 있도록 광진구 이동노동자 쉼터(아차산로 212, 더도담점830 3층)에 생수를 비치하고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생수 나눔은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쉼터 이용자는 운영시간 내 언제든지 방문하고 보건원 생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광진구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일 조성을 위해 2025년 9월 10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기와 냉온수기, 안마의자, 자동점차열판,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업무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구는 쉼터를 단순한 휴게공간에 그치지 않고 노동복지 정보 제공 창구로도 운영하고 있다. 쉼터 이용자는 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무료 노동상담을 비롯해 노동법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권익구제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근무 조건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동노동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장을 누비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분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중랑행복농산물 무인 판매

匾, 매주 월~토요일 운영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중랑 행복농산물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구민에게 선보이고 지역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중랑행복농산물 무인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민이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공공성·수혜도 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부터 수확, 전달, 판매까지 전과정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민이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공공성·수혜도 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부터 수확, 전달, 판매까지 전과정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민이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공공성·수혜도 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부터 수확, 전달, 판매까지 전과정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민이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공공성·수혜도 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부터 수확, 전달, 판매까지 전과정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도봉구,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 식품안전관리 교육

도봉구(구청장 오연석)가 건강 취약계층을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문 위생관리 인력이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식품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구는 25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21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시설별 1시간 과정(이론 40분·실습 20분)으로 운영되며, 식중독 예방수칙과 식재료 보관·관리 방법, 교육 키트를 활용한 퀴즈를 손 씻기 실습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시설내 조리 종사자, 관리자, 요양보호사, 실제 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동대문구, 27일 청량리종합시장 야간 축제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오는 27일 전통시장 야간 축제 '제1회 달빛 나들이'가 열린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달빛 나들이'는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소상공인, 청년 예술인 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이 전통시장 축제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량리종합시장과 인근 상인회가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선선한 저녁 야시장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음

동작구, 내달 4일 미래 과학 테마 '까망플래시페스티벌'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혁신권역 거점 도서관인 까망플래시 도서관(동작구 서달로 129, 흑석동)에서 오는 7월4일 오전 10시~오후 4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2026. 까망플래시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경험하게 하고, 일상 속 독서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구는 2025년 참여자 설문 조사 당시 '11월 과학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축제의 메인 테마를 '과학과 미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페스티벌은 과학과 놀이가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축제'로 기획했으며, ▲까망플래시어린이 ▲동작구유아종합지원센터 ▲중앙대학교 RISE아카데미 등 인근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 당일 도서관 공간 전체는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 테마 존으로 탈바꿈된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사회연대경제 이해 교육·공공구매 박람회 참석

중로구(구청장 정문환)가 오는 7월4~25일 '지역연대·도서관 연계사업'을 통해 주민과 책, 마음을 연결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중로구립도서관과 참여 지역 4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4일에는 소년책당 서점에서 청소년·성인 대상의 의약품

중로구, 내달 4~25일 4회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로구(구청장 정문환)가 오는 7월4~25일 '지역연대·도서관 연계사업'을 통해 주민과 책, 마음을 연결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중로구립도서관과 참여 지역 4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4일에는 소년책당 서점에서 청소년·성인 대상의 의약품

관 건학 프로그램 '동네배움, 책방이'를, 14일에는 상형공민

관 건학 프로그램 '동네배움, 책방이'를, 14일에는 상형공민 숲속도서관에서 출판편집자와 북서포럼에 참여하는 '도드라미! 북서포럼'을 운영한다. 15일에는 청문문화도서관에서 <허균에 안착하기>의 저자인 사직자기 아예과 함께 하는 '살과 작업 사이'가 예정돼 있다. 18일과 25일에는 초·중·고학생을 위한 '생태 관찰 기록 활동 프로그램 '신기한 생태도감'이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영등포구, 11월까지 상주자가 문학 프로그램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근)는 오는 11월까지 '상주자가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26년 문학상주자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상주자가 문학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이 갖춰진 작가 상주처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작가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공간과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길도서관은 소설가 정영수 작가와 손을 잡았다. 정영수 작가는 2024년 현대문학상 수상 작가로 저서로는 '내일의 연둣빛', '베갯머리'가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주자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작가의 방' ▲작가가 선정한 단편소설을 함께 읽는 '신길 문독' ▲단편소설 합람 및 글쓰기 지도를 제공하는 '내일의 작가들' 등이 운영된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관 건학 프로그램 '동네배움, 책방이'를, 14일에는 상형공민

관 건학 프로그램 '동네배움, 책방이'를, 14일에는 상형공민 숲속도서관에서 출판편집자와 북서포럼에 참여하는 '도드라미! 북서포럼'을 운영한다. 15일에는 청문문화도서관에서 <허균에 안착하기>의 저자인 사직자기 아예과 함께 하는 '살과 작업 사이'가 예정돼 있다. 18일과 25일에는 초·중·고학생을 위한 '생태 관찰 기록 활동 프로그램 '신기한 생태도감'이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영등포구, 11월까지 상주자가 문학 프로그램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근)는 오는 11월까지 '상주자가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26년 문학상주자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상주자가 문학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이 갖춰진 작가 상주처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작가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공간과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길도서관은 소설가 정영수 작가와 손을 잡았다. 정영수 작가는 2024년 현대문학상 수상 작가로 저서로는 '내일의 연둣빛', '베갯머리'가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주자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작가의 방' ▲작가가 선정한 단편소설을 함께 읽는 '신길 문독' ▲단편소설 합람 및 글쓰기 지도를 제공하는 '내일의 작가들' 등이 운영된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